

4차산업 포트폴리오

[Tech & Stock] 4차산업 Weekly | 2025.1.20

Analyst 김재임 jamie@hanafn.com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하나증권 4차산업 포트폴리오 종목별 수익률 현황

편입 종목	종가	주간변동 (%)	월간변동 (%)	FY1 PER	FY1 EPS	연간 매출액성장률(%)		연간 순이익성장률(%)		실적발표일
						FY1	FY2	FY1	FY2	
삼성전자	54,300.0	(3.2)	0.2	11.0	4,937.6	16.9	6.6	127.3	0.9	2025-04-04
알파벳	192.9	(0.5)	(1.9)	23.4	8.2	13.0	11.1	41.5	11.0	2025-01-30
애플	228.3	(5.9)	(9.1)	31.0	7.4	5.8	7.9	18.0	7.6	2025-01-30
메타플랫폼스	611.3	0.1	(2.1)	26.0	23.5	20.8	14.7	51.6	13.1	2025-01-29
마이크로소프트	424.6	0.0	(6.0)	32.4	13.1	13.8	14.1	11.3	14.9	2025-01-29
아마존 닷컴	220.7	(0.7)	(5.3)	36.6	6.0	11.0	10.8	122.5	13.9	2025-01-31
엔비디아	133.6	(4.7)	1.2	45.5	2.9	112.3	53.5	125.9	51.2	2025-02-26
넷플릭스	842.4	(3.7)	(8.5)	42.5	19.8	15.2	12.0	60.6	18.7	2025-01-22
IBM	222.7	(0.2)	(2.9)	21.8	10.2	1.5	4.5	7.8	4.9	2025-01-29
ASML	750.3	0.8	3.9	38.2	19.1	1.8	14.6	(4.4)	22.6	2025-01-29
TSMC	214.8	3.7	6.2	24.0	295.0	26.3	18.7	31.7	19.4	2025-04-18
알리바바	82.4	(1.5)	(4.2)	9.6	62.7	6.4	8.5	(3.9)	9.3	2025-02-07
바이두	80.7	(0.7)	(8.6)	8.2	72.0	(1.4)	3.7	(12.4)	1.0	2025-02-28
텐센트	382.4	2.4	(5.0)	15.7	23.0	8.0	8.7	38.9	9.4	2025-03-19
비야디	261.0	2.0	(2.1)	18.6	13.2	26.6	21.7	35.4	26.0	2025-03-26
비자	317.3	1.5	0.4	28.3	11.2	9.6	10.2	7.9	10.0	2025-01-30
어도비	426.9	1.8	(7.5)	20.9	20.4	9.3	10.2	7.3	10.4	2025-03-14
오라클	159.5	(2.2)	(6.8)	25.9	6.1	8.9	12.6	12.2	15.1	2025-03-11
서비스나우	1,057.2	0.8	(6.4)	76.0	13.9	22.5	20.6	30.9	17.6	2025-01-29
세일즈포스	320.0	(2.1)	(10.4)	31.9	10.0	8.9	9.1	21.0	12.1	2025-02-28
팔로 알토 네트워크스	177.2	2.5	(12.5)	55.8	3.2	14.0	15.4	14.7	17.5	2025-02-20
클라우드스트라이크	363.4	1.3	(6.4)	96.4	3.8	28.6	21.3	25.3	18.4	2025-03-05
데이터독	136.8	(3.6)	(12.2)	77.1	1.8	25.0	21.9	37.0	20.4	2025-02-13
화낙	4,434.0	5.5	9.9	29.6	149.7	(0.3)	7.3	6.0	15.5	2025-01-27
지멘스	194.9	(0.7)	2.4	17.4	11.2	4.4	6.7	9.2	2.1	2025-02-13
슈나이더 일렉트릭	254.4	(0.5)	4.0	31.2	8.2	5.0	8.7	14.0	16.0	2025-02-20
이튼	345.2	0.0	(2.8)	32.0	10.8	7.8	7.3	32.6	8.9	2025-01-31
일라이 릴리	757.6	(3.8)	(2.7)	58.3	13.0	32.8	29.5	123.4	75.3	2025-02-06
인튜이티브 서지컬	584.1	7.4	7.8	84.5	6.9	14.7	16.8	39.1	13.8	NA
		(0.1)	(3.0)			16.2	14.1	35.6	16.5	

주: 2025.1.16 종가 기준, 주간 변동은 5영업일 기준
 자료: Bloomberg 시장 예상치, 하나증권

실적 & 이벤트 코멘트 종목

인튜이티브서지컬(ISRG.US), TSMC(TSM.US), 반도체, 애플(A.US)

인투이티브서지컬

상장 국가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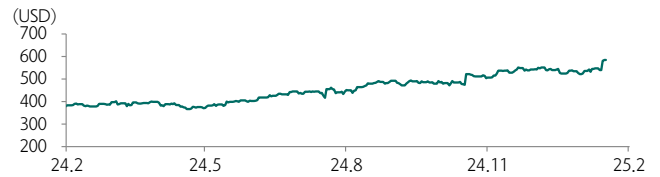
산업

의료장비

시가총액(십억달러)

208

최근 주가 추이



4Q24 잠정 실적 발표

4Q24 잠정 실적 발표, 주요 지표 기대치 상회

- 4분기 로봇 수술 건수는 18% yoy 증가, 예상치(16.5%)를 상회하여 2024년 연간 수술 건수는 +17%로 가이드스 상단에 부합. 2025년 수술 건수 가이드스는 13%~16% 성장을 전망. 4분기 다빈치 로봇 설치 대수는 493개로 19% yoy 증가했으며 신규 버전인 다빈치5는 174대로 전분기에 이어 시장 전망치(약 150대)를 여유 있게 상회. 2024년 연간 기준 로봇 설치는 1,526대로 11% yoy 증가했으며 다빈치5는 362대를 기록, 신규버전 도입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고무적.
- 4분기 매출액 잠정치는 24.1억 달러(+25% yoy)로 시장 컨센을 8% 상회. 수술 건수가 양호하게 증가하며 '장비&기구' 매출이 14.1억 달러(+23%)로 컨센을 4% 앞섰으며, 시스템 매출은 6.6억 달러로 36% 증가하며 컨센을 22% 상회. 시스템 매출이 기대치를 크게 상회한 주요인은 다빈치5 신규 버전 효과로 ASP가 상승하고 로봇 설치에서 리스 비중 감소 때문. 로봇 신규 설치 중 리스 비중은 3분기 58%에서 4분기 45%로 하락. 수익성 지표를 포함한 전체 실적 발표와 컨콜은 1월 23일 예정

다빈치5 설치 174대로 예상치 상회, 향후 예상보다 빠른 추세는 주가 상승 요인

- 2024년에 다빈치 최신 버전인 다빈치5를 미국을 중심으로 출시했으며 2025년에 글로벌 전체에 걸쳐 광범위한 출시를 진행할 계획. ISRG를 의료 장비 & 테크 분야에서 가장 유망한 우량주로 판단하는 이유는 1)전반적인 로봇 수술 증가에 따른 수혜, 2)다빈치5로의 업그레이드가 예상보다 빠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 다빈치 4세대 출시 시점인 2014년에는 리스 기반 도입 시스템이 없었기에 다빈치3(Si)에서 다빈치4(Xi)로의 업그레이드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까지 시간 소요. 현재는 전체 설치된 로봇 중 약 30%가 리스 기반이며 리스의 경우 월별 지불 비용을 높이는 구조이기에 업그레이드 비용 부담이 훨씬 적다는 점에서 다빈치5 도입이 이전 패턴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 또한 미국에서는 수술로봇 사용이 일반 외과 수술(61%비중)로 성공적으로 확대된 반면 해외 시장에서는 미국의 초기 단계처럼 여전히 일부 수술에 집중되어 사용되고 있기에 향후 해외시장에서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장 잠재력 막강.
- 다빈치5 기대감으로 주가는 지난 1년 기준 60% 상승, 12M FWD PER이 77배로 역사적 상단 수준. 단기적으로 차익실현 움직임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적 안정성이 높아 주가 변동성은 낮은 종목이며 1)다빈치5 업그레이드 효과, 2)수술 로봇 도입 분야 확대, 3)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자본지출 회복에 따른 수술 로봇 도입 상승과 한국 의료파업 관련 부정적 영향 해소 등이 주가 상승 재료

TSMC

상장 국가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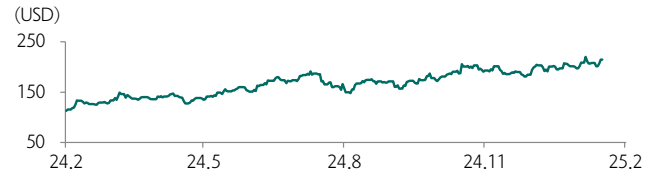
산업

반도체

시가총액(십억달러)

894.7

최근 주가 추이



4QFY24 실적 리뷰

4Q24 Review: 컨센 상회

- 4분기 합산 매출액은 8,684.6억 TWD(+39% yoy, +14% qoq)로 가이드런스(+34-38%) 상단 수준에 부합
- GPM 59.0%(+6.0%p yoy, +1.2%p qoq)로 컨센(57.4%) 및 가이드런스(57.0-59.0%) 상회. 3nm 공정 초기 가동에 따른 비용 증가에도 가동률과 수율 향상 통해 높은 수익성 달성에 의의
- 전체 웨이퍼 매출 비중은 3nm는 26%, 5nm 34%, 7nm 14%. 선단 공정 비중(74%)은 처음으로 70%를 상회
- 플랫폼별 매출 비중은 HPC 53%, 스마트폰 35%, IoT 5%, 자동차 4%

1Q25 가이드런스: 컨센 상회

- 매출액 250-258억 달러로 중간값 기준 컨센을 2% 상회, GPM 가이드런스 57-59%로 컨센 0.5%p 상회. 매출액은 스마트폰 비수기 영향으로 qoq 소폭 감소하나 AI 수요로 yoy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 GPM이 qoq 1%p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은 해외공장(일본 구마모토, 미국 애리조나) 초기 가동 비용, N2 및 CoWoS 확장에 따른 비용 증가 영향
- 2025년 Capex 가이드런스는 380-420억 달러(중간값 기준 +34% yoy)로 컨센을 14% 상회. 선단공정에 70%, 특수 공정에 10~20%,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10~20% 할당할 예정
- 2025년 연간 매출액은 +20% 중반대 성장 전망. 2024년 기준 매출액 비중 10% 차지했던 AI 가속기 매출이 2025년에는 두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5년 연간 GPM은 53% 이상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다소 보수적 전망. 이는 일본 등 해외 공장 비용 증가(약 2~3%p), 대만 전기 요금 상승(약 1%p), 선단공정 램프업 비용(1%p) 등 으로 인함

CoWoS 캐파 관련

- 실적 발표 전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등 다수 팹리스에서 CoWoS 오더컷 루머가 돌며 CoWoS 캐파 전망 하향 수정 여부 및 AI 수요 관련 언급에 집중
- Wei CEO는 오더컷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일단락했으며 오히려 캐파 증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
- AI 관련 매출액 역시 2024년 3배 이상 증가했고 2025년에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 첨단 패키징 매출액 비중은 '24년 8%에서 '25년 10% 이상 확대 전망했으며 패키징 GPM 역시 개선 중

반도체

미국 AI 반도체 수출 제한

- 1월 13일, 미국 상무부는 AI 반도체를 동맹국이 아닌 나라에 수출하는 양을 제한하는 규제안 발표. 1년 후 발효 예정
- 새로운 규제안은 전세계 국가를 세 등급으로 구분
 - 1) **Tier 1**(한국/일본/대만/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은 수출 통제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국가들은 미국 정부에 VEU(검증된 최종 사용자) 자격을 신청해 받으면 어느 나라로나 AI 이전이 가능함, 2) **Tier 2**(인도/유럽/스위스/이스라엘/아랍에미리트 등)는 물량을 제한해 수출 허용, 3) **Tier 3**(중국/러시아/이란/북한/베네수엘라 등)에 AI 반도체를 수출하는 경우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신청 시 거부 추정 원칙으로 심사로 사실상 AI 수출 금지
- AI 반도체를 활용해 훈련된 AI 모델 역시 수출 통제 기술에 추가
- 엔비디아는 이번 규제에 대해 반대 성명 발표. 소버린 AI 주요 고객인 중동 국가들이 2등급 국가에 포함
- 1월 15일, 미국은 추가 규제 발표. TSMC와 삼성전자, 인텔 등 제조업체에 고객사를 더 면밀히 조사하고 실사를 늘리도록 함
- 네덜란드 정부 역시 1월 15일 최첨단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 확대 발표. 4월 1일부터 발효되는 규제로 ASML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코멘트

애플

상장 국가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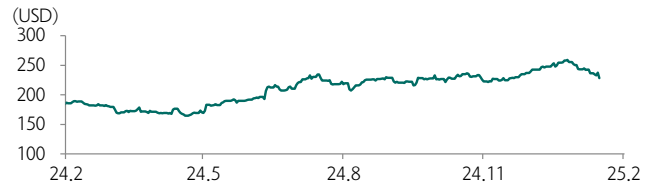
산업

IT

시가총액(십억달러)

3,433

최근 주가 추이



중국에서 점유율 하락 우려

11월 & 2024년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

- 중국 정보통신기술원(CAICT)에 따르면 중국 스마트폰 11월 출하량은 -6% yoy, +1% mom. 내수 부진으로 광군제 효과도 미미했던 것으로 판단
- 아이폰을 포함한 외국 브랜드는 -47% yoy 큰 폭 감소했으며 로컬 OEM은 +4% 증가
- 아이폰은 2017년 이래로 가장 낮은 11월 출하량 기록. 신규 출시한 아이폰 16 시리즈에 AI 기능을 아직 탑재하지 못한 것이 주된 이유로 추정. 바이두와의 파트너십이 데이터 공유 문제 등으로 난항
- 1월 16일 공개된 시장조사업체 Canalys 자료에 따르면 2024 중국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 점유율은 15%로 로컬업체인 비보(17%), 화웨이(15%)에 이어 3위 포지션.
- 출하량 기준 애플은 중국에서 2023년 대비 -17% 감소, 비보는 +17%, 화웨이는 +37%
- 애플의 주요 공급자인 TSMC는 16일 있었던 실적발표에서 1Q25 스마트폰 매출이 약 6%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4분기부터 AI 칩 매출이 스마트폰을 뛰어넘고 있다고 언급한 점도 투자심리에 악영향

2024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2024년 스마트폰 시장은 +4% 성장(2년만에 반등세)
- 출하량 기준 1위는 삼성전자(점유율 19%)로 갤럭시 S24 시리즈와 A 시리즈 제품군에 대한 수요가 강력했던 것으로 평가. 2위는 애플(18%)로,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 탑재가 지연됨. 3위~5위는 샤오미(14%), 오포(8%), 비보(8%) 등 중국 업체로 2023년 대비 상위 업체들의 순위 변동은 없음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임, 김시연)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5년 1월 20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임, 김시연)는 2025년 1월 20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